

Daily Auto Check 2020.12.8(Tu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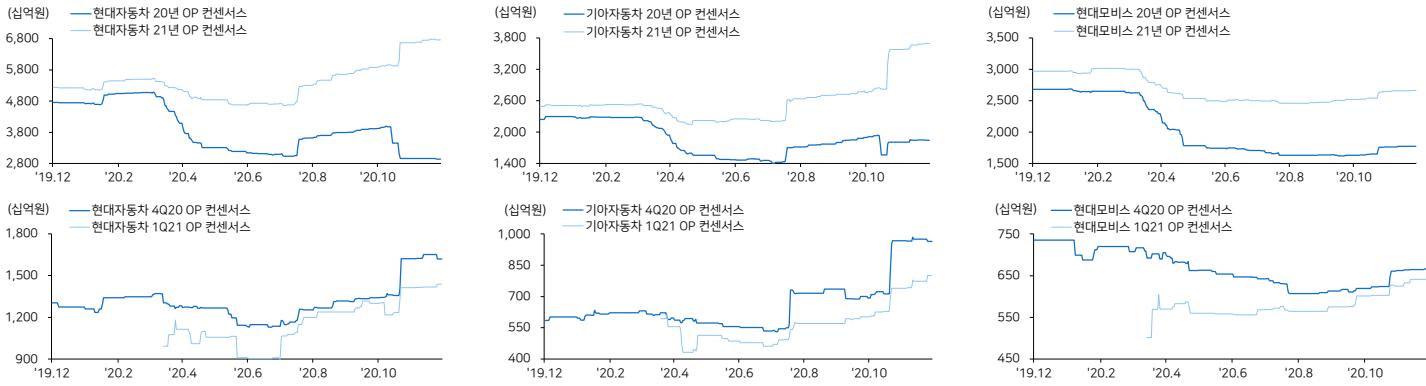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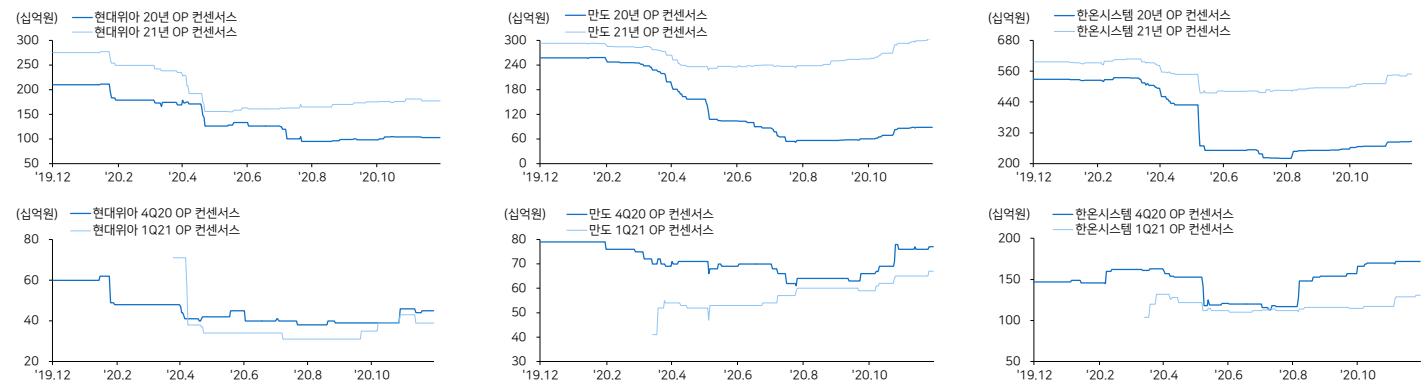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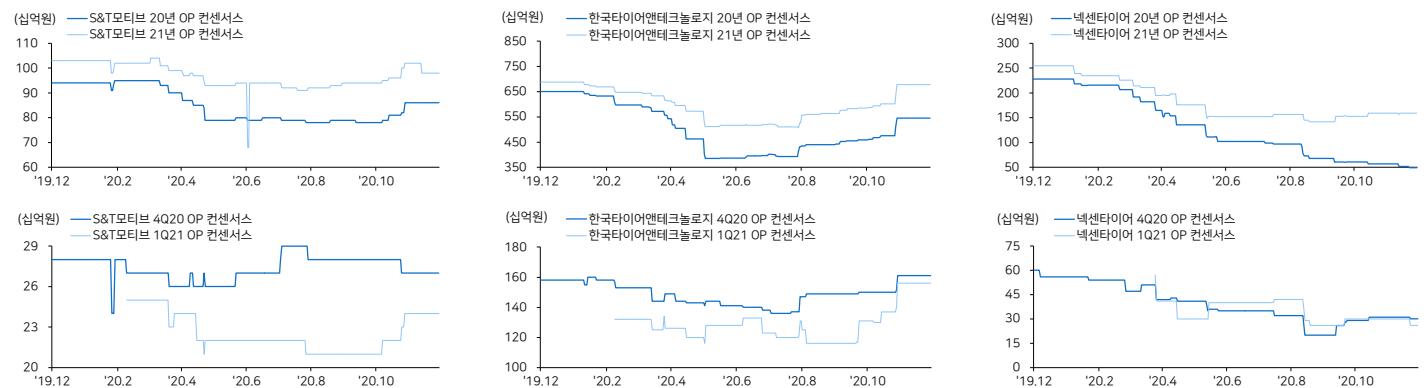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제네시스 GV70가 나온다. 현대차 중형SUV 자존심 회복 '꼴판왕'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의 고급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중형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GV70가 8일 나온다. 현대차는 그동안 국내 소형과 대형 SUV 시장 확대를 이끌면서 중형SUV 시장에서는 다소 지배력을 잃었는데 GV70에 기대를 걸고 있음.
<https://bit.ly/3mY1cpA>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질적 성장 기회" vs "생태계 사찰" (연합뉴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7일 국회 산자위에서 공청회가 열렸음. 원성차 업계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현대차의 중고차업 진출을 흥행했고,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가 진출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맞섰음.
<https://bit.ly/2VMYNEI>

현대차 코나 등 47개 차종 8만여대 리콜 (한국경제TV)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판매한 47개 차종 8만2천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힘. 대상 업체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BMW코리아 등
<https://bit.ly/3x3PMW>

현업계 면밀까지 갈등 몸풀…기아차 노조 3차파업 분수령 (SBS CNBC)

코로나19 여파에 생산 차질까지 빚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임금, 단체협약 타결에도 난항을 겪고 있음. 기아차 노조는 내일 2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오는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4시간 부분 파업으로 확대할 예정.
<https://bit.ly/2VNfrPN>

글로벌 화물운송 '전기차 플랫폼' 경쟁... '테슬라 잡고 점유율 높리자' (조선비즈)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개막을 앞두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경쟁'에 나서고 있음. 폴크스바겐 이외에도 미국 GM(BEV3), 독일 디아리터(MEA), 일본 도요타(E-TNGA) 등 다른 업체들도 일제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공개.
<https://bit.ly/37LgPMl>

엔진 악재 해소 '현대·기아차, 미국 시장 공략 가속 (뉴스토마트)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대규모 리콜이 증강기적으로 시장 입지를 넓히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관측이 나옴. 관련 비용으로 받을 충격은 크지 않고 수년간 발목을 잡아 온 악재를 해소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임.
<https://bit.ly/31SrVQn>

현대차 전주공장 8명 확진... 트럭라이너 가동 중단 (한국경제TV)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트럭 라인 가동이 중단됨.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 7명과 가족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음.
<https://bit.ly/2JJKFEFA>

현대차, 코나EV 5,790대 배터리 환재로 독일서 리콜 (M오토데일리)

현대차가 코나 EV 수 천대에 대해 배터리 환재 위험을 이유로 독일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 코나EV는 같은 이유로 한국과 미국,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 약 7만7천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고 있음.
<https://bit.ly/3gIMBPw>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